



타이어 원재료 시장

1. 세계 고무 시장

2010년 세계 고무 소비 및 생산 현황

IRSG (국제고무연구회)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세계고무 총 소비량은 2,452만 9,000톤으로 전년대비 15.3%가 증가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반등하였다.

2010년에 세계적 불황으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수 국가들이 2009년 소비 실적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는 2009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고무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고무소비 2위국인 미국의 3배 이상 소비량을 나타내며 최대 고무소비국의 자리를 고수하였다.

가. 고무 소비 현황

2010년 세계 고무 소비량은 총 2,452만 9,000톤으로 전년대비 15.3%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천연고무 소비량은 1,067만 1,000톤으로 14.4% 증가 하였으며 합성고무는 16.1% 증가한 1,385만 8,000톤을 기록하였다.

〈고무 소비량 상위 10개국 추이〉

(단위: 천톤,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① 중국	5,807.20	6,379.70	6,376.80	7,613.60	8,113.20	(6.6)
② 미국	3,003.90	2,908.80	2,735.90	2,134.80	2,640.10	(23.7)
③ 일본	2,044.50	2,049.60	2,015.50	1,467.50	1,719.40	(17.2)
④ 인도	1,079.40	1,140.80	1,174.80	1,226.20	1,348.00	(9.9)
⑤ 브라질	719.4	822.2	838.7	724.6	904.7	(24.9)
⑥ 독일	903.9	880.7	832.9	591.6	844.3	(42.7)
⑦ 태국	539.8	597.6	592.6	620.1	744.3	(20)
⑧ 한국	727.3	724.4	687.2	608.3	714.4	(17.4)
⑨ 말레이시아	495.7	573	593.5	599.3	621.2	(3.7)
⑩ 인도네시아	482.7	515.7	551	498.6	602.9	(20.9)
기타	6,549.20	6,826.50	6,388.10	5,181.40	6,276.50	(21.1)
세계 합계	22,353.00	23,419.00	22,787.00	21,266.00	24,529.00	(15.3)

주: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원: IRSG 통계 (고무報知신문 집계)

국가별 고무 소비량을 살펴보면, 세계 동시 불황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침체되었던 2009년에도 고무소비에서 19.4% 증가를 보였던 중국이 2010년에도 811만 3,200톤으로 6.6%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 고무 소비량을 보였다. 중국의 세계 고무시장 소비량은 2009년 35.8% 비중에서 2010년에는 2.7%p 감소한 33.1%를 기록하였다. 제 2의 고무 소비국은 미국으로, 소비량은 전년대비 23.7% 증가한 264만 100톤이었으며, 뒤이어 일본은 171만 9,400톤으로 17.2% 증가를 기록하였다. 2010년도 세계 고무 소비량 상위 10개국 중 미국, 일본, 브라질, 독일,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7개국은 2자리 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나. 고무 생산 현황

(1) 천연고무

2010년 세계 천연고무 생산량은 총 1,029만 1,000톤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태국이 전년대비 2.9% 감소한 307만 2,000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보였으며, 뒤이어 인도네시아가 15.9% 증가한 282만 8,700톤을 기록하였다. 천연고무 최대 생산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57.3%를 점유하였다. 생산량 상위 10개국 중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이 전년대비 생산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코트디부와르는 2자리 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천연고무 생산량 상위 10개국 추이〉

(단위: 천톤,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① 태국	3,137.00	3,056.00	3,089.80	3,164.40	3,072.00	(▼2.9)
② 인도네시아	2,637.00	2,755.20	2,751.00	2,440.00	2,828.70	(15.9)
③ 말레이시아	1,283.60	1,199.60	1,072.40	856.2	939	(9.7)

④ 인 도	853.3	811.1	881.3	820.8	851	(3.7)
⑤ 베 트 남	555.4	605.8	660	723.7	750	(3.6)
⑥ 중 국	533	590	560	644	650	(0.9)
⑦ 코트디부아르	178.3	183	194.2	205.8	231.5	(14)
⑧ 스리랑카	109.2	117.5	129.2	137	150	(9.5)
⑨ 브 라 질	107.8	115.7	123.1	127	132	(2.2)
⑩ 미 안 마	73.4	88.5	93.2	111.6	98.9	(1.2)
기 타	359	367.6	573.8	471.5	587.9	(20.8)
세계 합계	9,827.00	9,890.00	10,128.00	9,702.00	10,291.00	(6.1)

주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원 : IRSG 통계 (고무報知신문 집계)

2010년 천연고무의 생산량(1,029만 1,000톤)은 소비량(1,067만 1,000톤)을 38만톤 하회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타이어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고무소비국들의 급격한 고무소비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세계 천연고무 소비량은 2009년 대비 7.4%, 2008년 대비 23.3% 증가하였다. 이 같은 천연고무 생산 부족은 투기세력과 결부되어 천연고무 가격을 사상 최고치까지 올려놓았으며, 이는 실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궁극적으로 천연고무의 생산은 식목부터 고무원액 채취까지 6~7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인 증산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2) 합성고무

2010년 세계 합성고무 생산량은 총 1,400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최대 합성고무 생산국은 중국으로 9.8% 증가한 313만 6,800톤을 기록하였으며, 뒤 이어 미국이 18.3% 증가한 232만 2,000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2자리 수 생산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합성고무 생산량 상위 10개국 추이)

(단위 : 천톤,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① 중 국	1,845.20	2,215.00	2,325.00	2,856.40	3,136.80	(9.8)
② 미 국	2,569.40	2,658.00	2,275.30	1,962.00	2,322.00	(18.3)
③ 일 본	1,607.00	1,654.60	1,651.00	1,303.20	1,578.00	(21.1)
④ 한 국	848	1,010.00	970	1,149.00	1,219.30	(6.1)
⑤ 러 시 아	1,219.00	1,209.90	1,173.10	971.1	1,153.60	(18.8)
⑥ 독 일	865	803	791	743	935	(25.8)
⑦ 대 만	575.4	627.7	589.9	605.8	638.5	(5.4)
⑧ 프 랑 스	663.9	655	566	465	568.1	(22.2)
⑨ 브 라 질	417.5	425	392	385	415.9	(8)
⑩ 영 국	305	318	301.5	248	238	(▼4.0)
기 타	1713.6	1,799.80	1,706.20	1,572.50	1,796.80	(14.3)
세계 합계	12,629.00	13,376.00	12,741.00	12,261.00	14,002.00	(14.2)

주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원 : IRSG 통계 (고무報知신문 집계)

(자료원 : 일본 '고무報知신문' (2011.3.7))

세계 고무 수급 전망

중국과 인도와 같은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국가에서의 타이어 수요 급증에 따라 지속적으로 천연고무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다. 천연고무생산국협회(ANRPC)에 따르면, 주요 고무 생산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최근 기후여건은 고무 생산의 확대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고무부족과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천연고무 공급은 2010년에 전년대비 6.3% 증가한 940만톤을 기록하였으나, 천연고무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2011년에도 주요 고무생산국인 태국에서의 동절기 확대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폭우가 인도네시아지역에서 이례적인 폭우에 따른 수확감소와 맞물리면서 천연고무 생산에 있어서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고무 생산국으로부터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고무 수확은 2012년에 이전 확대계획에 따라 조성된 태국 북부 870,000헥타르의 고무 농장이 수확을 시작하면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2011년에는 예정되어 있는 태국 남부 815,000헥타르의 고무 농장 감소에 따라 생산에 있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성고무 부타디엔 모노머의 세계적인 생산 부족과 함께 전체 합성고무 생산 또한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전술한 중국과 인도에서의 타이어 수요가 급증과 비교하여, 대규모 합성고무 생산능력을 전략적으로 구축해 왔던 중국과는 달리 인도의 합성고무 생산은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인도의 합성고무 생산 능력은 단지 50만톤에 그쳤다.

〈 자료원 : 영국 'Tyres & Accessories' (2011.2월) 〉

2. 타이어 코드 시장

국내외 타이어코드 시장 동향

최근 타이어코드(Tire Cord) 시장이 자동차 및 타이어 수요 급증에 힘입어 활기를 띄고 있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입어 자동차 내수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0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426만 대, 2011년에는 2.2% 증가한 436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타이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이어 시장 관계자는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출고하기에도 벅차 재고 확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국산 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선전함에 따라 국내 타이어 인지도 제고효과까지

더해져 브릿지스톤(Bridgestone)등 글로벌 타이어기업들의 타이어 및 타이어코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타이어코드 생산기업인 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려강선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타이어코드 수요 급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공장을 100%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코드는 소재 별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나일론(Nylon), 스틸로 구분되며 폴리에스터와 스틸 소재는 고성능 타이어 선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나일론 소재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수요 감소와 중국 등 신흥국들의 도로 포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수요는 글로벌 40만톤, 국내 2만9,000톤으로 전체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시장은 효성과 코오롱이 각각 46%, 20%를, 국내시장은 각각 58%, 32%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타이어코드 가격이 크게 올라 수익성이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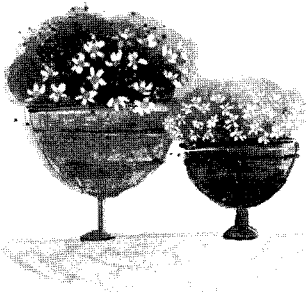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가격은 2010년 kg당 내수 2,880원, 수출 3,622원을 형성했으나 2011년에는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및 MEG(Monoethylene Glycol) 등 원료가격 급등과 인건비 등 제반 코스트 상승이 반영돼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이 각각 3,000원대와 4,000원대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내 타이어코드 생산기업들은 타이어코드가 타이어, 타이어는 자동차에 연동해 움직임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및 타이어 생산기업들의 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동차와 타이어의 고성능·고내구성 제품 수요 증가로 타이어코드 역시 수요처의 스펙(Spec)에 맞춰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면서 생산능력 확장을 통해 규모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효성은 폴리에스터 소재의 원료인 PTA부터 폴리에스터 칩, 원사, 코드지, 열처리 등 후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1위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스틸코드 시장에도 진출해 전체 타이어코드 시장을 석권할 방침이다. 효성은 2007년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에 53,000톤 공장을 건설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폴리에스터 소재 외에도 공격적인 연구개발로 신소재 타이어코드를 개발해 경쟁기업보다 앞서 고품질제품을 런칭할 방침”이라며 “특히 지식경제부 주관 WPM(World Premium Material) 사업과 연계해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폴리케톤

(Polyketone) 소재 개발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이어 “일본 Sumitomo Electric과 합작법인을 중국 남경(Nanjing)과 타이랴옹(Rayong)에 설립해 총 6만5,000톤의 스틸코드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스틸코드 수요의 65%를 차지하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주)코오롱인더스트리 역시 원사에서 후가공까지 가능한 국내 2위 생산기업으로 1,000억원을 투자해 2011년까지 중국



남경공장 생산능력을 1만 2,000톤 증설해 2만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오롱의 내수 및 수출 판매 가격은 kg당 4달러대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생산능력이 작아 점유율이 작았지만 중국공장 증설을 계기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오롱이 타이어코드 분야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시장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고려강선은 스틸코드만을 생산해 국내 시장의 50%를 차지한 선두기업으로 세계시장의 30%를 확보하고 있는 벨기에 베카르트를 바짝 뒤쫓고 있다. 고려강선 관계자는 “40년 제강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이어 스틸코드만큼은 최고 품질을 보유하며 순수 코드강선 기준 9만톤의 생산능력으로 국내 생산능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효성의 참여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겠지만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타이어코드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시장이 유럽의 금융위기로 다시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이 경기에 민감하고 구매시점과 지불시점이 달라 경기에 선행 반응하는 경향이 짙어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부상하는 경제위기가 미칠 파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PTA 등 원료가격의 상승추세도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PTA는 2010년 6월 CFR SE Asia 톤당 841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 2011년 1월 21일 CFR China 톤당 1,378달러로 폭등했다.

〈자료원 : '화학저널' (2011.3.21)〉 